



테이프 놀이와 배움을 잇다.



공립모두별어린이집
최경아



우리 반에도 **배움**이
자라고 있어요
유아 눈높이에서 시작한

테이프 놀이이야기

- 산이반(만3세) 15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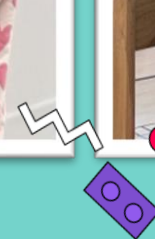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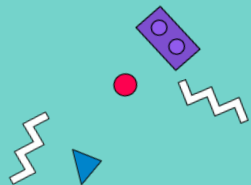
교사의 고민이 변화를 만든다

- ✚ 놀이가 바닥에서 벽까지 확장되는데, 더 넓게 이어줄까요?
- ♥ 흐름을 막지 않으려면, 어떤 자료를 더 제공해야 할까요?
- ✿ 유아 스스로 공간을 인식하고 조절하려면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할까요?
- ✚ 이 놀이를 다른 반, 이음교육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요?



한 줄의 테이프, 놀이가 공간을 바꾸다

테이프 한 줄에 귀 기울이기



테이프로 이어가는 상상

좋아하는 놀이감과 연결되며, 유아의 상상이 넓어졌습니다



닿는 곳마다 놀이가 된다

교실 안 모든 구조물이 놀이가 되는 순간



교구장에서도



책상에서도



옷장에서도

테이프를 따라 몸도 움직인다

바깥놀이터까지 이어진 놀이

기차놀이



2인 3각



홀라후프 공놀이



림보놀이



놀이는 이어진다

테이프 하나로 이어진 가정과 교실의 연결고리



3월 3주 산이반 놀이이야기

더불어, 함께, 행복한
공립 **오도보**
모두별 어린이집

이번 주 산이반은 테이프로 교실 벽과 바닥에 다양한 집, 경찰서, 소방서, 병원, 도로 등을 만들어 붙이며 놀이했습니다. 자동차 모형과 레고로 만든 집들이 합쳐져 멋진 마을이 완성됐고, 친구들과 함께 역할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또 최근에 마스크 테이프를 붙여 물감을 칠해보기도 하고, 테이프를 이용해 가랜드를 만들거나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 실외활동에서도 신체 활동을 활발히 즐겼답니다.



공립 **오도보** 모두별 어린이집

제주시 항오길 30-5 ☎064-713-0950

거실에서



집에서



동생반도 함께

어려움은 놀이의 또 다른 시작

교사는 멈추지 않았고, 유아는 길을 바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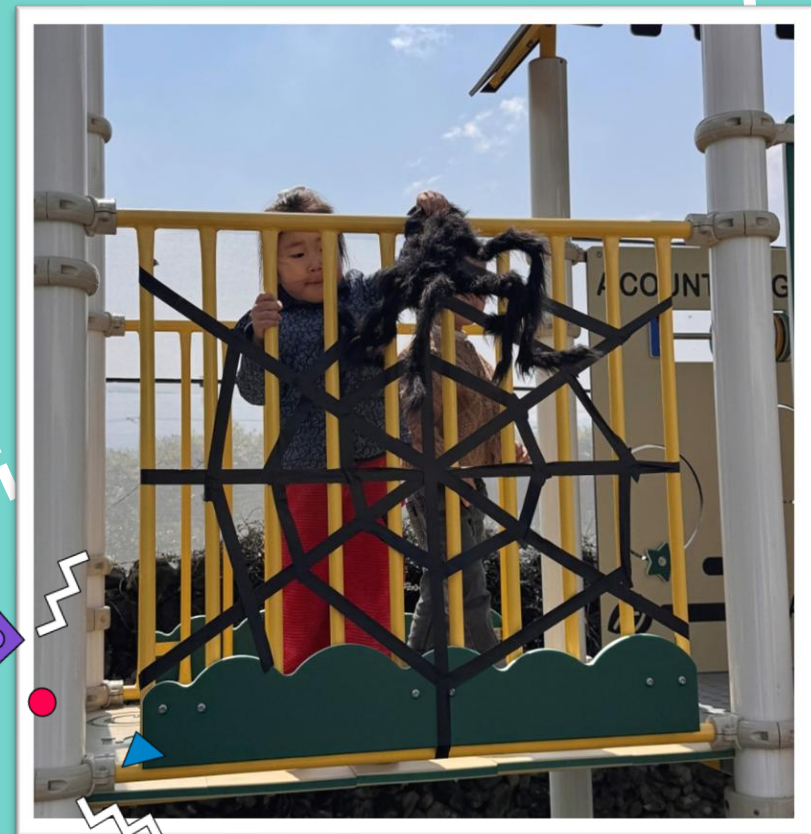
놀이가 교실 전체로 퍼지며
동선이 겹치고 테이프가
엉키는 일도 있었지만,

유아들은
스스로 길을 바꾸고
엉킨 테이프 속에서
'미로'와 '숨은 길'을 만들어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놀이의 소개 및 새로운 놀이의 시작

끈적 끈적 거미 놀이



작은 테이프 한 줄에서 시작된 변화

유아도, 교사도, 부모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유아의 변화



테이프는 단순한 선이 아닌
길이 되고, 다리가 되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유아들은 공간을 연결하고,
친구와 협력하며,
놀이를 자기 방식으로
확장했습니다.

교사의 변화



교사는 더 이상 놀이를
조절하지 않고,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재료가 유아들에게 얼마나
깊은 배움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고,
환경과 안전도 유아와 함께
조율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부모의 변화



단순한 놀이로 여겼던 테이프는
집에서도 놀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할 줄
몰랐어요”
부모의 놀라움은 **아이의**
가능성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